

“선입견 넘어 공감으로” 미리 본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

대형집체화·수묵화 등 22점, 7일부터 일반 공개

“북한 그림이라고 하면 낯설고 신기하다. 고만 얘기하는데 직접 보면 거부감 보다는 그 작품의 수준에 놀라고 모두 우리 그림 같은 느낌을 훨씬 크게 받아오.”

광주비엔날레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비엔날레 전시관 중 한 곳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전시실에 관람객이 몰려들었다.

그동안 공공 배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미술·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이 프레스 오픈을 위해 잠시 문을 열자 전시실 안이 취재진과 관람객들로 금세 북적였다.

북한 그림에 대한 선입견을 떨칠 것을 강조한 소개 글을 읽고 전시실에 들어서면 북한 그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형 집체화가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새물길이 뻗어간다’란 제목의 이 그림은 흑한의 낱씨 속에 수십 명의 노동자가 수로관 건설 작업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집체화는 가로 5m 세로 2m가 넘는 크기의 대형 그림으로 2명 이상의 작가가 함께 참여해 작품을 완성한다.

‘새물길이 뻗어간다’도 6명의 작가가 참여해, 망치질하는 노동자·용접공·설계감리자·불도저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

북한미술전을 기획한 미국 조지타운대

문범강 교수는 ‘새물길이 뻗어간다’와 함께 북한 집체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선 노동자들을 그린 그림을 꼽았다.

문 교수는 “이 그림에는 집체화의 특징인 노동현장의 모습, 웃고 있는 다양한 얼굴들,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는 협동하는 자세, 힘든 현장에서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 등이 등장인물 한명 한명에 모두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집체화가 사회주의 노동현장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들도 볼 수 있다.

전시실 중앙에는 입진왜란 당시 평양성 전투를 그린 대형화도 걸려 있고, 비 내리는 퇴근길 북한의 버스 정류장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소나기’에서도 국가 선전과 같은 색채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을날 노랑계 물든 나뭇잎을 뒤로하고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쉬고 있는 분홍색 머리카락의 어린 여학생들을 그린 ‘월잠’에 ‘도 북한 그림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전시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문 교수가 극찬한 북한의 수묵화를 감상할 수 있다.

금강산을 각각 그린 스승과 제자의 그림, 길이 5m의 긴 유리 상자 안에 들어 있

는 ‘운봉집’도 눈길을 끈다.

특히 운곽선을 그리지 않고 대상을 묘사하는 몰골법의 대가 최창호 작가의 ‘금강산’과 ‘국제전람회장에서’라는 대표작도 만날 수 있다.

호랑이 눈동자를 그리는 데에만 7시간이 걸렸다는 김철 작가의 ‘범’도 관람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눈발을 박차고 튀어나올 것 같은 ‘범’은 흰 눈을 표현한 부분이 종이의 질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매우 사실감 있게 표현했다.

북한 미술사학자인 운봉 리재현 작가의 문인화들과 운봉집도 문 교수의 ‘엄지적’ 작품들이다.

/차이정 기자 chaajung@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



박광은 “광주형 일자리 위해 당·정·청 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최고위원은 6일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광주·현대차·노동계와 함께 당·정·청 협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 유일한 호남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를 찾아 시의원들과 정책담화를 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자치분권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처음 걷는 길은 늘 쉽지 않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노동계의 반발 등을 의식한 듯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목표는 상생이 아니라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기본을 지

켜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반값 연봉과 투자규모가 아니라 시간이 다소 걸려도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원칙을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당·정·청 협의회 개최를 약속했다.

박 최고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시작되더라도 조기 안착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광주 ‘노사민’을 참여시키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광주 기초 광역의원·기초단체장 활동 지원 방안, 광역단체장 공천권 시도당 이상, 광주시당 정책연구소 설립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태영 기자 esaca@

영호남 수필 문학 제28집 출판 기념회

(사)영호남 수필 문학협회(광주·전남 지회장 배병수)는 1991년 도 창간호를 이어온 영호남 수필 문학 통권 제28집을 발간하고, 오는 8일, 무등산 자락 무등파크 호텔에서 내빈과 (사)영호남 수필 문학협회 6개 지역 회원 등 80여 명이 모여 문학 잔치 한마당을 펼친다.

식전 행사로 영호남 수필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기념식에서는 한국 문인협회 지연희 수필 문학 부회장과, 한국 수필가 협회 장호병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서, 한영자 창립이사장이 수여하는 창립 문학상과 영호남 문학상 시상식을 한다. 전북 김은숙이 제3회 창립 회장상, 대구 원용수가 제2회 영호남 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부에서는 영호남 수필 노래 경연 대회가 열리며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기쁨 상, 사랑 상, 신바람 상을 시상한다. 본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의 모닥

불에 둘러앉아 만찬과 더불어 일 년 동안 쌓인 정담을 나눈다. 동서 화합이 목적인 (사)영호남 수필 문학협회 한마음 잔치는 매년 호남과 영남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내년에는 대구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호남수필 창간호는 1991년 발간해 매년 발간했으며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기존의 영호남 수필 문학협회를 (사)영호남 수필문학협회로 2016년 6월에 인가하여, 2017년에 제27집을 발간했으며 올해 제28집을 출간했다.

문학의 장르는 시 희곡 소설 수필 평론 동화 동시 등이 있지만, 자신의 체험을 가미해 발표하는 글이 수필이다. 이번 제28집을 접한 독자들은, 영호남 수필 작가들이 체험과 생각을 수필로 표현한 작품마다 잘 다듬어 쓴 수준 높은 작품으로써, 영호남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수필집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기연 전 영암삼척초등학교교장

이정환 광주시의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논의 문제 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 개최...2017년도 결산안 조례안 등 처리

광주시의회 이정환(광산5) 의원은 6일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둘러싼 공론화 논의의 대표성·책임성·전문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론화가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질 수 있고 지역사회 분열과 혼란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 7기가 시작될 지 벌써 두 달

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 공론화 방식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재 이뤄지는 공론화 논의의 문제점으로 이 의원은 대표성·책임성·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참여자들이 과연 150만 광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의심스럽

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주요이제들을 몇 번의 학습과 토론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공론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론화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며 “16년간의 소모적인 논란도 모자라 또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낸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시민은 수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학습했고 하루빨리 착공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민 염원을 생각할 때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집(남구1) 의원은 “무상급식·수업료·수학여행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보편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광주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순천시 공고 제2018-1463호

순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순천시 인제동 376-12번지 일원 남정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열람을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순 천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면적 (㎡)	기점	중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계지	최 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점	소로	2	320	8	국지 도로	144.5	인제동 8급 22-4급	인제동 도로	전남고시 제129호 (1989.5.13)	중복결정 (40m)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신설	⑥	노외주차장	인제동 376-12일원	-	⑤)3,007	3,007		중복결정 (지상)

■ 주차장 결정사유: 남정지구 인근 주민내 배수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공원(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변경	8	인제공원	어린이공원	인제동 375-5일원	1,460	⑤) 20	1,480	전남고시 제90호 (1978.5.15)	

※ 공원구역 변경 없이 토지대장 면적으로 반영

라.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 초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기점	13	유수지	저류시설	인제동 376일원	5,420	-	5,420	순천시 고시 제2017-80호 (2017.6.15.)	
변경	13	유수지	저류시설	인제동 376-12일원	5,420	감) 598	4,822	*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 남정 지구내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 우수 저류시설 위치 변경

2. 관계도면 : 계획생략(순천시 건설과, 도시과 비치)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8. 9. 7. ~ 9. 21. (14일간)
나.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
4. 주민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가.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건설과(749-6725), 도시과 (749-6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